

선무 압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多 모여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축제 금산사에서 열려

템플스테이는 한해 10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홍보하는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템플스테이 운영 관계자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가 처음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중훈)은 3월 27~29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아주는 템플스테이, 신나는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자들과 실무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첫날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제부터 시작됐다.

학술제에는 진경 스님(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심원섭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심 연구위원은 '템플스테이 활

성화 방안'을 통해 '최근 체험관광의 수요 다변화와 차별화된 체험관광상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심원섭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북과 충남이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서울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충북 등 9개 지역은 별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비롯해 운영 실무자들의 중박된 사중 업무와 잦은 이직 등 운영사업자의 인력시스템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 등 지자체와 운영사업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학술제에 이어 골굴사의 '움직이는 선의 숨결', 법흥사의 '압화 꽃 누르미', 장육사의 '풀 뽑으며

번뇌 뽑기', 대원사의 '약초주머니 만들기' 원주 송광사의 한지 만들기 체험, 대안 스님의 발우공양 체험 등 템플스테이 운영사업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고 전주 차회의 다도시법, 강국실 선생의 사찰음식 전시, 운영사업의 홍보물과 사진 전시, 예쁜 명화 콘테스트도 함께 열렸다.

운영사업 스님들이 직접 참가한 아름다운 소리나누기 법교경연대회에는 수석사 경학 스님이 원력을 일으키는 소리상을 수상했다. 금산사가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에게 밥을 나눠주던 구시통 비빔밥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화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임창창과 천재학교 소년들의 공연, 중앙국악관현악단, 전남대 판소리 합창단 '보림' 등의 공연이 펼쳐져 템플스테이 운영에 노고가 큰 스님과 운영실무자들을 위로했다.

시상식에서는 △사찰부문 황금



3월 27~29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제1회 전국 템플스테이 문화축제에서 문화공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흥을 더했다.

법종상(총무원장상)에 금산사, 미황사, 묘각사, 영평사가 △운영스님부문 황금법고상(문체부장관상)에 송광사 각안 스님, 화엄사 대요 스님, 팔굴사 적운 스님, 부석사 주경 스님이 △실무자부문 황금목어상(사업단장상)에 법주사 연복홍, 지장정사 이택현, 봉은사 문사수 법우가 △공로부문 황금운판상(준비위원장상)에 월정사와 대원사 현장 스님, 흥법사 심산 스님,

사업단 이동의 팀장이 수상했다. 문화축제 준비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은 "2002년 템플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이만큼 성장해왔던 이면에는 운영사업 스님들과 실무자들의 노고가 컸다"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템플스테이의 미래를 밝혀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당 불교센터 건립 계획

백양사 불교대학 개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4월 1일 장성읍내 산립조합 2층에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향후 현대적 시설을 갖춘 포교당과 불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불교대학 개설 행사에는 시몽 스님, 백양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 스님을 비롯해 이청 장성군수, 김재열 신도회장, 신현국 불교대학장, 불교대학 신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격려사에서 "신라시대 불교처럼 산중이 아닌 중생의 삶 의 현장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로 거듭나고자 불교대학 개설을 시작으로 불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첫 개강한 고불총림 백양사 불교대학은 신도입문과정을 중심으로 재가자가 운영의 중심을 이루는 불교대학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백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백양사 관할지역 나주, 담양 등에 불교대학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양사 불교대학은 동참(백양사 운문선원 선원장, 미산(상도선원 주지), 법장(백양사 율원장), 우공(백양사 강원 강사, 금강(미황사 주지), 법인(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스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암 도갑사 '보현거사회' 창립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3월 28일 대웅전에서 보현거사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한 지역기관장과 재가거사 50여 명이 동참했다.

월우 스님은 법문에서 '보현 거사

회는 기초교리는 물론이고 경전강의, 설법, 참선, 회원연구발표회 등 다양한 주제의 법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육바라밀행을 실천해 창조적인 지혜와 실천으로 불교발전에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놀토 "청소년들이 모여라"

광주 무각사 벼룩시장·고창복지관 공연

매일 둘째 넷째 주 놀토를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계의 행사가 다채로와 눈길을 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3월 28일 무각사 주차장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4대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재활용품장터인 '보물섬' 벼룩시장을 열었다.

행사에는 청학 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총대리주교, 원불교 광주전남 김현 교구장, 무진교회 장관철 담임목사 등 4대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시민과 구청 관계자,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벼룩시장에서 청학 스님을 비롯한 각 종교대표들은 뜻지리를 깔고

각기 소장품을 내어 판매행사에 동참했다. 각 개인이 소장하는 물품을 파는 것 외에 광주시를 비롯해 5개 구청과 단체에서는 녹색나눔장터, 기후변화 재활용장터, 청소년 나눔축제, 자전거 재활용장터 등 단체에 맞는 테마장터도 열렸다.

청학 스님은 "보물섬이 재활용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의장이 되길 바란다"며 "매일 두 차례 열리는 이 장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이 생활의 습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물섬'은 매일 2·4주 놀토에 진행되며, 판매를 희망하는 참가는

신분증과 판매 물품을 갖고 접수하면 된다. 당일 판매수익의 10%이상은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같은 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놀토 프로그램 첫 행사는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60여 지역청소년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연극관 앞으로 놀토! 열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음 놀토 프로그램은 4월 11일 진행된다. 이날 전통문화 체험행사로 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다도(茶道)예절 프로그램이 진행돼 청소년들의 올바른 행동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일천팔십명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엄장소멸 범륜대 탄생"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범륜대에 전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환국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엄장이 소멸되는 범륜대법당당자에 봉안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경제지킴이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특별혜택:

- 1. 99.9% 순금개금불사비 95만원만 지불하시고 잔액 155만원은 정월, 4월, 7월,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시는 혜택.
- 2. 사암연합회 및 개인 예약방문스님에게 특별한 선물 증정.
- 3. 범륜대 안에 보일듯 말듯한 부처님의 미소가 뚜렷히 보이면 소원 성취 된다고 알려지는 권선문을 드립니다.
- 주문수량의 한계로 35분 한정으로 1치분을 마감합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전통상감장터투기

- 제품명: 천불봉안범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형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일반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엄장소멸 범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범륜대입니다.

사중살림 성장의 기폭제를 위한 발원으로 태어난 작품이 오는

4월 3일 ~ 4월 5일까지 2009년 한국 불교 박람회(대구 엑스코)에 전시 됩니다.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정음 칠보암 주지 진월 스님

"관음기도 정근으로 지혜원 건립 등 불사 회향"

깊은 골짜기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느새 찾아온 봄에 향기로운 햇살이 더해 나른한 오후, 정음에서 전남 담양으로 넘어가는 쌍치고개 정상에 위치한 칠보암 진월 스님(사진)을 찾았다.

쌍치고개 인근은 동학의 주역 전봉준이 공주전투와 금구전투에서 잇따라 패하자 숨어든 곳이 있을 만큼 험준한 산세가 일품이다.

칠보암은 진월 스님이 1999년 인적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 작은 움막 임법당을 짓고 일부 대지를 임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장건했다. 칠보암에 자리잡았던 스님의 원력은 부단한 정진으로 이어졌고 10여 년 만에 대지 3200평에 연건평 350평의 지혜원과 법당, 요사를 갖춘 여법한 사찰이 될 수 있었다.

"처음 칠보암에 자리 잡을 당시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습니다. 땀감도 부족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아궁이에 물이 차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낮에는 불사하고 밤에는 촛불로 불 밝히며 오로지 관세음보살 정근을 했습니다."

스님의 정진에 불보살님들은 칠보암 불사의 원만한 회향으로 가피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도들은 하나 둘 늘어났다. 늘어난 신도에 신바람이 났던 스님의 정진은 배가됐고, 10여 년에 걸친 대불사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

"은사인 원웅종 총무원장 성관 스님의 배려와 총무부장 진호 스님의 성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신도들과 기도한 정진력 덕분에 지혜원을 건립했고 부처님 진

신사리 17과도 봉안했습니다."

원웅종은 장엄하게 회향한 칠보암을 중단 인제불사 요람의 전승관으로 활용 중이다. 2008년 전종도가 참여한 수련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스님은 기도와 불사를 진행하는 정진이 농사를 직접 짓기기도 했다. 특히 지역특산품인 복분자를 심어 사중살림에 보탬은 물론 인근 지역의 농가 수익을 늘리기도 했다. 된장, 고추장 등 직접 담근 장류를 판매해 불사에 보태기도 했다.

진월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안히 쉬어갈수 있는 도량으로 바꾸고 싶다"며 "사찰 재정은 물론 지역 농가에도 고정 수입원이 되는 복분자 판매사업과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 판매 사업을 확장해 지역노인들과 함께 하는 노인복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칠보암 불사를 회향한 스님의 새 복지불사 원력의 여법한 회향을 기원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